

# 광주 상무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 본격화

### 민자사업 두산건설 컨소시엄 선정... 8월 실시 협약

### 2019년 공공기관 등 대체열원 공급... 예산절감 기대

광주시에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추진 중인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함에 따라 이르면 2019년 초부터는 상무지구 내 주요 기관에 대체열원이 공급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상무소각장이 폐쇄돼 열원이 사라지면서 연간 20억원을 들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막대한 예산 절감도 기대된다.

광주시는 6일 “상무소각장 대체열원으로 추진 중인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민자업체로 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 우선 협상을 하고 있다”며 “오는 8월 실시협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상무지구 지평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설 연료전지 발전사업 시설에선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연료전지 발전사업 민자 공모는 그동안 3차례나 무산됐으며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3월 단독 응모했다. 광주시는 애초 6월 초까지 민자 업체와 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열 공급 관로의 연산강 도강(渡江) 문제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 등이 미뤄지면서 8월 말까지 늦춰졌다. 협약이 마무리되면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초 착공, 2019년 초 정상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연료전지를 통해 생긴 열원은 광주의 신도심인 상무지구 내 광주시청 등 27개 공공기관과 아파트 단지 등에 공급된다.

상무지구는 지난 15년간 쓰레기를 소각하는 상무소각장에서 나온 폐열을 공급받아 냉난방을 해왔다. 소각장 폐쇄 뒤 대체열원 확보가 시급한 광주시는 2년 전부터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모에 나섰다. 경제성 부족 등으로 참여업체가 없어 번번이 실패했다.

연료전지 발전규모는 27.5MW/h로, 연간 10만Gcal의 열원을 생산해 상무지구 내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판매한다. 민간업체는 20년간 사용한 뒤 원상 복구하는 조건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사무관 이상 67명 승진 인사

광주시가 5급 사무관 이상 간부 67명을 비롯해 하반기 승진자 201명의 명단을 6일 확정, 발표했다. <명단 22면> 이종환 시 공무원교육원장이 2급으로 승진했고, 국장급인 3급 승진자는 장성수 대변인, 황봉주 정책기획관, 강백룡 안전정책관, 김석용 문화도시정책관 등 4명이다. 또 손경중 자동차산업과장은 3급 지정대리로 결정됐다.

이 원장은 시의회 사무처장에, 장 대변인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강 정책관은 종합건설본부장, 황 기획관은 자치행정국장, 김 정책관은 정책기획관, 손 국장은 일자리경제국장 등 각각 임명됐다.

지정대리인 박갑수 대중교통과장과 김순옥 총무계장, 전은옥 기획계장, 정원삼 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과장,

박용 재해예방계장 등 22명은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사무관 승진은 행정직 20명, 시설(토목·건축) 6명, 통상 2명, 전산, 사서, 공업, 농업, 녹지 각 1명 등 40명이다. 이 밖에 6급은 72명, 7급 53명, 8급 9명 등이 승진했다. 여성 서기관급으로 김순옥 총무계장, 이명순 복지정책계장, 황은주 산수도시서관장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시는 승진 인사에 이어 대변인에 서병천, 지역공동체추진단장 문정찬을 선임하는 등 과장급(4급) 이상 전보인사도 단행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사람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에너지밸리 기업 채용박람회

### 전남도, 11일 나주시

전남도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나주시내 체육관에서 '2017 에너지밸리 기업 채용박람회'를 연다.

이날 채용박람회는 한국전력공사, 나주시, 광주전남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동일이엔티 등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21개 기업에서 약 1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 분야는 전기, 기계, 연구개발, 생산, 사무직 등 다양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업·구직자 중심의 채용상담에 집중한다.

전남도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에너지 관련 기업이 속속 입주함에 따라 잡매칭데이·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등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연결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전남도 일자리종합센터 080-500-1919.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정한 지방선거 시민토론회

6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무진관에서 열린 '정치개혁광주행동 출범식 및 공정한 2018지방선거 규칙 시민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린 토론회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이번엔 제대로 된 수장 맞이해야 할 텐데

### 광주도시공사 사장 3번째·문화재단 대표 재공모

광주시가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재공모한다. 광주 최대 공기업, 그리고 광주 문화컨텐츠를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 기관이 이번엔야말로 수장을 맞아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두 차례 공모에도 사장 선임에 실패했던 도시공사는 지난달 27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5일부터 11일까지 3차 공모 지원서를 접수 받고 있다.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심사는 17일 열리고 같은 날 임용 후보자가 시장에게 복수 추천된다. 임기는 기본 3년이며, 경영 성과에 따라 해임 또는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앞서 도시공사는 2월10일 1차, 3월14일 2차 공모에 나섰으나, 1차 공모가 무산되고 2차 공모에서도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했다. 이후 7명의 임추위원 전원이 일괄 사임하면서 임추위가 재구성됐다.

문화재단도 대표이사 재공모를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공고했다. 이사장을 대행해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3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다.

오는 17~21일 원서접수, 24일 서류심사, 27일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 추천, 최종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 시의회 인사청문을 밟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

# 민형배 광산구청장 “한전공대 유치 참여 않겠다”

### 광주·전남 상생 방안 촉구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채택돼 설립 될 예정인 한전공대를 놓고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유치경쟁에 불참을 선언하고 광주·전남의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성명을 통해 “특정 지역 유치가 먼저 논의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한전공대 유치가 광산구는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이어 “광주·전남 어디에 한전공대가 설립되면 그 효과의 향방은 동일하다”며 “광산구는 ‘공간’차원의 한전공대 유치 경쟁에는 뛰어들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광산구의 경우 평등에 있는 전남축산기술연구소 이전부지(약 34만㎡)가 한전공대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연구소는 광산구(연산동)와 나주시(노안면) 양쪽에 걸쳐 있는데, 조만간 이전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진곡산단, 빛그린산단, 광주도시첨단국가산단, KTX광주송정역, 광주공항 등 지역내 주요산업시설 및 광역교통 거점과 10km 내 거리에 있어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도 민 구청장이 ‘유치경쟁 불참’을 선언한 것은 자칫 지역간 다툼이 벌어질 경우 어렵게 잡은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발전 기회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 구청장이 “한전공대로 얻어야 할 것은 ‘부동산 효과’가 아니라 ‘지역인재의 동반 성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시 신임 처장·국장급 프로필



### 이종환 시의회 사무처장

강직하면서도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평가.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로, 의회 공보계장을 지내 의회 사무에 능통한 편이다. 과거 의회에서 인연을 맺은 의회 보좌관들과 호형호제할 정도로 인간 관계도 원만하다. ▲광주일교 ▲조선대 무역학과 ▲일자리경제국장 ▲경제산업정책관 ▲국제협력과장



### 장성수 도시철도본부장

결단력과 카리스마가 있다는 평. 강력한 추진력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나간다. ▲정광고 ▲호남대 행정대학원 ▲서구 총무국장 ▲하계U대회조직위 홍보부장



### 황봉주 자치행정국장

부드럽고 모든 업무에 능통한 ‘행정’의 달인’으로 통한다. 감사실 등에 근무하면서 동료직원과의 소통도 원만한 편이다. ▲광주고 ▲조선대 법학과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교통정책과장



### 강백룡 종합건설본부장

강력한 리더십으로 부하직원을 믿고 함께 일을 추진하는 스타일이다. 인간 관계가 원만하며 일처리에 빈틈이 없다. ▲조선대부속고 ▲연세대 건축공학과 대학원 ▲도시디자인과장 ▲건축주책과장



### 김석용 정책기획관

일처리가 꼼꼼하고 원만하다는 평. 다양한 해외 경험과 일자리 관련 업무를 통해 쌓은 노하우도 풍부. ▲서강고 ▲고려대 행정학과 ▲일자리정책과장 ▲국제교류담당관 ▲외교부 파견



### 손경중 일자리경제국장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어 나가는 스타일로, 광주시의 대표적인 노력과 공무원이다. ▲동일실업고 ▲전남대 전자공학과 ▲도로과 전기사업총괄담당 ▲전략산업과장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 062-364-8800

#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만원 ~~650만원~~ **4만7천원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제품

농협 업무자유

에어컨 뽐뽐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사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Hanwha Q CELLS 한화큐셀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해가온빌딩 1층)